

#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Veterans' Perception of Old age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Plan

양태호,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Tae-Ho Yang(yangho3120@naver.com), Wang-Kyu Lim(wklim@hoseo.edu)

### 요약

본 연구는 급속한 한국의 인구 고령화로 노후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다소 소외되어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2개 영역(경제적·여가)의 노후설계준비에서 계급, 학력, 종교, 가정구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신체적 영역에서는 재산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군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나타냈다.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인식을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인식'과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으로 상반된 개념의 두 가지 요인을 적용한 결과, 이들은 2개 영역(경제적·여가)의 노후설계준비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나 신체적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직지원교육 학습활동의 조절효과는 노후생활인식 중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에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성공노년 인식'요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 중심어 : 예비 전역자 | 노후생활인식 | 노후설계준비 | 학습활동 | 전직지원교육 |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 of the old age life effect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plan for veterans who are somewhat isolated from our society in spite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old age plan due to the rapid population aging society in Korea.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meaningful differences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of population are rank, level of education, religion, composition of family members in old age life plan in two parts(economic, leisure), whereas only property in physical part has a meaningful difference. That indicates the result was reflected by the character of military.

The study on how veterans' perception of the old life affects the old age plan applied two contrasting factors - 'the successful perception of old age life' and 'the perception of expected matters in old age'. That represents those factors(economic, leisure) made positive effects on preparation for old age plan, but not in physical part. 'Expected perception of matters' made regulation effect, but 'success of old age perception' didn't in terms of regulation effect of learning activity as part of the veteran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 keyword : | Veteran | Perception of Old age life | Preparation for Old age plan | Learning Activity | Veteran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

## I. 서론

### 1. 연구배경

직업군인은 전, 후방으로의 잦은 이동과 업무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역에 있을 때 자격증이나 전역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만 사회와의 단절된 생활과 정보의 통제는 노후대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1]. 취업을 하려해도 일반사회나 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격리된 독특한 군대문화에 젖어있는 탓에 사회적응도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군에서 받던 봉급의 절반 수준도 못 받는 경우가 많기에 직업군인들은 정년 나이가 결정되는 진급에 집착할 수 있고 이는 오직 군사대비에만 전념해야만 하는 군인본연의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게 만든다[2]. 물론 군인연금이 있어 전역 후에도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인생주기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전역하게 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제대(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사회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설계까지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 연구의 목적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 비해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4].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준비의 필요성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모든 축각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신세대 장병의 관리에 축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둔감하거나 알면서도 대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군에서는 다소 낮설고 다른 사람의 주제 같은, 그러나 군인에게도 반드시 닥치는 노후문제를 예비 전역자를 대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전역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노후생활인식의 개념을 다시 설정하여 그것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고, 전직지원교육간 이루어지는 학습효과는 노후생활인식과 노후설계준비 간에 어떠한지 분석하여 군도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직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3.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① 군인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② ‘노후생활인식’이란 ‘성공적 노후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개념에서 보다 복합적인 개념, 즉 성공적 노후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도 인식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조사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③ 노후설계준비시 취약한 핵심적인 요소 3가지(경제적, 신체적, 여가)만 선정하여 연구의 초점을 단순하게 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며 제한되었던 사항들을 제시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가설과 모형을 정하여 예비 전역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직업군인의 노후대비

#### 1.1 직업군인의 특성

직업군인은 매 순간 국가의 안보를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종으로 사회의 일반 직종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5]. 첫째,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엄격한 군법 하에 기본권(거주이전, 통신, 언론출판의 자유)이 제한되며 GOP, 해안경비초소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군인은 공기업이나 교사 및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짧다. 전투중심의 교

육훈련 및 작전수행 등을 고려하여 신체 여건상 정년이 짧으며,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5세~56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하고 있다. 셋째, 군인은 재취업이 어렵다. 군인의 업무가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역 후에 사회 재취업이 곤란하고 취업기간도 2~8년에 불과하다. 넷째, 군인은 잦은 이사로 가족들의 희생이 동반된다. 결혼 후 평균 2년 1개월마다 이사를 하고 있으며 중·대령의 80% 이상이 9회 이상 이사 경험이 있다. 다섯째, 군인은 자녀교육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다. 간부의 47.8%가 읍·면 소재지 수준의 격오지 및 전방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작전임무·비상대기 등 상시근무태세로 사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6].

## 1.2 전역자

군인은 의무복무하는 병사와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 및 준사관으로 구분된다. 병사들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제대하여 예비역(군)으로 편입되고 직업군인 또한 각 계급에 따라 정해진 연령 또는 계급정년 기간에 도달하면 군을 떠나게 되어 예비역이 된다. 즉, 부역(負役)을 담당함에 있어서 현역(現役)을 마치고 예비역(豫備役)으로 바뀌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비 전역자'는 20년 이상 군에서 장기복무한 상사 이상 대령까지의 군인 중 2014년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한정하였고 의무복무 병사와 20년 미만 복무자 및 장군 전역자는 제외하였다. 병사와 장군은 전직지원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20년 미만의 장기복무 군인은 상이한 교육장소에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후속연구를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 1.3 전직지원교육

예비 전역자들을 위해 정부는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직지원교육은 이들에게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교육(2주)을 통해 신분과 소속의 변화에 따른 자기관리와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기업특성을 이해하며, 자기의 능력과 역량의 사

회 접목가능성을 진단하여 취업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심화교육(취업역량교육, 자격 취득과정,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가 및 민간분야 자격증 취득, 전문성 향상 등 취업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7].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직지원교육은 재취업 위주의 교육으로 생애설계교육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 2. 노후생활인식

노후생활인식이란 노후의 가족관계, 경제문제, 사회적 문제, 신체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 노년기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8].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2개의 다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후생활인식이라는 것을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이 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노후생활인식'이라는 것을 '현재와 비교하여 노후생활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2분법으로 정의한 연구[9]도 있으나 위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후생활인식을 전자인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모습'으로 접근한 연구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탄탄하며 가족적 측면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사회 환원적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성공적 노후인식으로 보았다[10].

노후생활인식의 후자 개념은 노인이 되는 시기,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과 문제가 되는 점, 노후의 분양책임, 자녀들의 부모부양 문제,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 노후대책 준비 시기[11]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노후준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노후생활인식으로 보았으며 이외에도 장민자(2003), 박효영(2009), 김희정(2010) 등이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인식을 각각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였는데 현재생활이든 노후생활이든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공존하기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사용하여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통

합하였다.

### 3. 노후준비(노후생활설계)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8]으로 본 논문에서는 노후생활설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 즉, 노후준비의식은 준비시기에 대한 것,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노후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 주거에 대한 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노후준비 행동은 의식하고 있는 것을 실제 구현하는 행위적 참여와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말한다[4].

준비하여야 할 영역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진(2012)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박현숙·임정도(2012)는 경제력, 건강, 여가활동 분야로, 배문조(2011)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여가의 준비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권인숙·홍성희(2013)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노후 직업설계, 여가설계, 재무설계, 은퇴 노후설계의 4개 영역의 준비정도를 측정하여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후준비 종합 진단지를 개발하였는데 진단영역은 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의 4개 영역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 영역을 여가에 포함하여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여가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3.1 경제적 준비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그 차이를 메우려는 노력이 경제적 노후준비이다[13].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의 ‘노후준비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준비 점수가 100점 만점에 58.8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제적 준비를 나타내는 재무분야는 47.1점으로 여가(46.1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14]. 그러면 경제적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성격이 아니라서 구체화된 것이 드므나 앞에 제시한 ‘노후준비

종합 진단지’의 진단 결과 보고서에 잘 제안되어 있다. 즉,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연간지출표를 활용하여 정확히 추정해 보고,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소득 규모와 추가 저축해야 할 규모를 판단하며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을 올리되 실패로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 3.2 신체적 준비

Birren(1959)은 노화를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그리고 사회적 노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생물학적 노화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저절로 신체적 기능이 서서히 감퇴하고 환경에 대한 반응능력이 차츰 떨어지는데 이런 자연스런 현상을 ‘일차적 노화’라 하고, 외적인 요인, 예컨대 질병, 실직 배우자 사망, 생활습관 등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고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이차적 노화’라 한다. 이러한 ‘이차적 노화’는 개인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생활양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16].

성공적 노화는 생의 마지막까지 질병, 기능 쇠퇴 등으로 고통 받지 않고 기능을 유지하는 건강 장수이며 ① 무병-무장애, ②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유지, ③ 활발한 사회참여의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1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으나 노화의 속도나 신체의 쇠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므로[18]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다.

#### 3.3 여가

노인의 여가활동은 젊은이들의 여가 성격과는 달리 ① 건강증진, ② 사회적 접촉과 사귀는 기회증진, ③ 사기와 생활만족감 증진, ④ 자기 가치성과 자기 유용감 확대, ⑤ 자립성 향상, ⑥ 재미있고 즐거운 삶 등을 위해 계획되어야 한다[19]. 최근에는 노인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욕구가 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에는 휴식 및 친목모임이나 취미와 오락 활동 외에도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노인 자신에게 삶의 보람을 가지게 하는 사회참여의 기회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0].

#### 4. 학습활동

학습활동이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실천해야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학습목표 달성은 개인적 특성과 상황, 학습방법 등에 영향을 받지만 개인적 특성에 한정하여 연구한 Neo(1986)의 모형에 의하면 학습동기는 학습에 직접적 영향을 주면서 행동변화로 이어지는데, 행동의 변화는 학습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될 때에 극대화되며, 또한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대와 자기효능감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21]. 이는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전역자들도 본인의 학습동기와 기대, 자기효능감에 의해 어느 정도 교육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직지원교육의 교육효과를 학습방법이나 여건 등을 고려 안하고 단순히 학습활동만으로, 그것도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만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분명 적절하지 못하나 예비 전역자들이 받는 교육에 노후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동기와 같은 학습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교육효과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을 변수로 고려하였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노후생활인식’이란 ‘성공적 노후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개념에서 보다 복합적인 개념, 즉 성공적 노후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도 인식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노후설계준비 영역 또한 가장 취약하고 핵심적인 요소 3가지(경제적, 신체적, 여가)만 선정하여 연구하여도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본 연구의 초점이 뚜렷해질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학습활동이 교육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효과가 노후생활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정변수 중 ‘노후생활인식’은 이준우(2011)·이해근(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적용하였고, 노후설계준비 영역은 박현숙·임정도(2012)가 연구하였던 영역인 경제력, 건강, 여가활동분야로 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주로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을 조절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1. 예비 전역자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인식은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예비 전역자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인식은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예비 전역자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인식은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예비 전역자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인식은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예비 전역자의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예비 전역자의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예비 전역자의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예비 전역자의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활동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1.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과 경제적 노후설계준비 간에 학습활동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과 신체적 노후설계준비 간에 학습활동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과 여가 노후설계준비 간에 학습활동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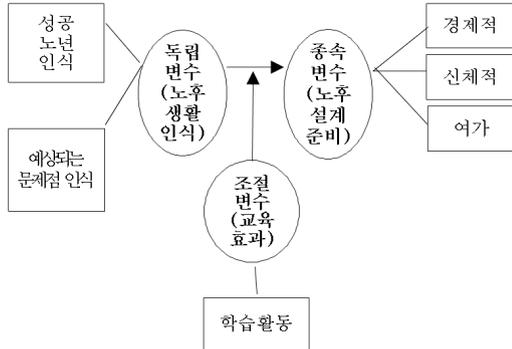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전직 기본 교육을 받고 있는 군생활 20년 이상의 예비전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50부이며 수거된 설문지 중 결측값이 없는 23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과 노후설계 준비, 전직지원교육효과를 측정변수로 하여 이에 관한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설문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들 변인의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고유치 1.0이상, 요인부하량 0.5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하였다.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0.6이상일 때 수용하였다.

### 3.1 독립변수

독립변수 노후생활인식은 선행연구 중 성공노년인식은 박지선[22]의 척도를,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김정임[23]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

량이 0.5이하인 2개 문항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전자는 0.812, 후자는 0.682 수준을 나타냈다.

### 3.2 종속변수

종속변수 노후설계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여가의 3개 요인으로 김남순[24]과 오경숙[25]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0.5이하인 2개 문항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경제는 0.805, 신체는 0.711, 여가는 0.87 수준을 나타냈다.

### 3.3 조절변수

조절변수 전직지원교육효과는 학습활동에 따른 효과로 한정, 박희정[26]과 김진영[27]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0.5이하인 1개 문항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943 수준을 나타냈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배경변수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특징

본 연구는 군생활 20년 이상의 예비 전역자 중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97.4%로 대부분이고, 육군이 54.3%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51세 이상이 96.6%, 계급은 원사와 준위를 합하면 81.1%, 군복무 기간은 31년

이상이 89.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65.1%로 다수이나 대학 이상도 30.1%였다. 대부분 결혼(94.4%) 하였고 미혼(1.7%)과 이혼(3.9%)은 매우 적은수로 나타났다. 2자녀 가정(73.3%)이고 개인 소유의 주택(79.9%)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66.7%)사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2013년 육군에서 파악한 20년 이상 근무한 현역의 자가 보유율(대령 50.5%, 중령 37.3%, 준위 33.3%, 원사 34.5%) 보다 이들의 보유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입교한 예비 전역자들이 그들보다 10년 이상 복무했고 군에서 지원되는 관사를 떠났거나 떠나야 할 시점에 있기에 주택 소유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226
	여자	6
소속	육군	126
	해군	29
	공군	77
연령	41-50세	7
	51-55세	196
	56세 이상	28
계급	상사	16
	원사	108
	준위	80
	소령	3
	중령	19
	대령	6
복무기간	21-25년	3
	26-30년	22
	31년 이상	207
학력	고졸	151
	대학중퇴	11
	대졸	45
	대학원졸	25
종교	기독교	40
	불교	85
	천주교	41
	기타	66
결혼여부	미혼	4
	결혼	219
가정구성	이혼	9
	부부만	17
	1자녀	39
	2자녀	170
	3자녀	2
	기타	4
개인주택 소유여부	있다	185
	없다	47
재산정도	5천만 원 이하	33
	5천만-1억 원	118
	1억-2억 원	37
	2억-3억 원	27
	3억원 이상	1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배경변수와 종속변수 노후설계준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2.1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분석

배경변수 중 계급, 학력, 종교, 가정구성은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소속, 결혼여부, 성별, 주택 소유여부, 재산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계급별로는 소령이 평균 4,6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타 계급의 정년이 50대인 반면 소령은 45세로 조기에 전역함에 따라 그 만큼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설계 준비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종교 면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유의한 배경변수 보다는 평균의 차가 적었고 가정구성 면에서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독립되어 자신들만의 노후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분석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t	유의 확률	비고
소속	①육군	126	3,949	0.788	F(3, 228) =0.313	.816
	②해군	29	4,059	0.731		
	③공군	77	3,909	0.613		
계급*	①상사	16	3,700	1.148	F(5, 226) =2.721	0.021
	②원사	106	3,853	0.701		
	③준위	80	4,000	0.654		
	④소령	5	4,640	0.410		
	⑤중령	19	4,295	0.563		
	⑥대령	6	3,900	0.666		
학력*	①고졸	151	3,872	0.710	F(3, 228) =2.996	.032
	②대퇴	11	3,945	0.587		
	③대졸	45	3,991	0.836		
	④대학원졸	25	4,328	0.513		
종교*	①기독교	40	4,000	0.818	F(3, 228) =2.869	.037
	②불교	85	3,791	0.813		
	③천주교	41	4,176	0.634		
결혼 여부	④기타	66	3,976	0.535	F(3, 228) =.768	.513
	①미혼	4	3,550	0.681		
	②결혼	219	3,955	0.734		
	③이혼	9	3,800	0.306		

가정 구성*	①부부만	17	4.271	0.612	F(4, 227) =2.923	.022	
	②1자녀	39	3.738	0.771			
	③2자녀	170	3.981	0.712			
	④3자녀	2	3.900	0.707			
	⑤기타	4	3.200	0.000			
성별	①남성	226	3.953	0.729	t(229) =.589	.254	
	②여성	5	3.760	4.10			
주택	①있다	185	4.001	0.672	t(230) =2.264	.202	
	②없다	47	3.736	0.871			
재산 (원)	① 5천만	33	3.667	0.927	F(5, 226) =1.444	.210	
	② ~1억	118	4.044	0.729			
	③ ~2억	37	4.044	0.698			
	④ ~3억	27	3.897	0.619			
	⑤ 3억~	17	4.074	0.512			

\* p<.05, \*\* p<.01

2.2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분석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 중에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혜진[9]의 연구에서 학력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군인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군인들은 일반직장인들과 달리 매일 1~2시간의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매년 체력검정을 통해 건강과 체력을 테스트 받으며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어 신체적 노후준비가 평소 대상자들 모두 이루어지기에 다른 배경변수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정도에서 재산이 많을수록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분석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t	유의 확률	비고	
소속	①육군	126	4.069	0.726	F(3, 228) =2.050	.108	
	②해군	29	4.333	0.480			
	③공군	77	4.026	0.587			
계급	①상사	16	3.750	0.847	F(5, 226) =1.958	.086	
	②원사	106	4.106	0.614			
	③준위	80	4.053	0.675			
	④소령	5	3.800	0.512			
	⑤중령	19	4.263	0.705			
	⑥대령	6	4.542	0.188			
학력	①고졸	151	4.053	0.640	F(3, 228) =.258	.855	
	②대퇴	11	4.114	0.769			
	③대졸	45	4.139	0.734			
	④대원졸	25	4.130	0.621			
종교	①기독교	40	4.175	0.739	F(3, 228) =.972	.407	
	②불교	85	4.047	0.686			
	③천주교	41	4.183	0.570			
	④기타	66	4.004	0.627			

결혼 여부	①미혼	4	4.625	0.433	F(3, 228) =2.325	.076	
	②결혼	219	4.089	0.655			
	③이혼	9	3.607	0.775			
	④미혼	9	3.607	0.775			
가정 구성	①부부만	17	4.103	0.516	F(4, 227) =2.107	.081	
	②1자녀	39	4.218	0.629			
	③2자녀	170	4.065	0.675			
	④3자녀	2	4.250	0.707			
	⑤기타	4	3.250	0.289			
성별	①남성	226	4.087	.657	t(229) =.293	.757	
	②여성	5	4.000	.750			
주택	①있다	185	4.137	.659	t(230) =2.579	.232	
	②없다	47	3.862	.623			
재산* (원)	①~5천만	33	3.750	0.619	F(5, 226) =7.4905	.000	①<④ ②<③ ②<④ ⑥<④
	②~1억	118	3.919	0.434			
	③~2억	37	4.305	0.653			
	④~3억	27	4.446	0.601			
	⑤ 3억~	17	4.009	0.755			

\* p<.05, \*\* p<.01

2.3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분석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 중에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구성과 주택소유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선행연구 중 배문조[4]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이 지나치게 남성(226명)위주로 되어 여성(5명)과의 유의한 통계적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분석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t	유의 확률	비고	
소속	①육군	126	4.302	0.666	F(3, 228) =1.145	.332	
	②해군	29	4.304	0.462			
	③공군	77	4.218	0.545			
계급	①상사	16	4.000	0.598	F(5, 226) =1.115	.332	
	②원사	106	4.266	0.669			
	③준위	80	4.263	0.565			
	④소령	5	4.440	0.537			
	⑤중령	19	4.389	0.397			
	⑥대령	6	4.567	0.497			
학력	①고졸	151	4.279	0.601	F(3, 228) =1.011	.389	
	②대퇴	11	4.055	0.858			
	③대졸	45	4.209	0.649			
	④대원졸	25	4.400	0.387			
종교	①기독교	40	4.160	0.681	F(3, 228) =1.824	.144	
	②불교	85	4.294	0.595			
	③천주교	41	4.434	0.508			
	④기타	66	4.197	0.617			
결혼 여부	①미혼	4	3.900	0.346	F(3, 228) =1.578	.195	
	②결혼	219	4.272	0.612			
	③이혼	9	4.143	0.412			

가정 구성*	①부부만	17	4.235	0.408	F(4, 227) =3.194	.014
	②1자녀	39	4.533	0.545		
	③2자녀	170	4.214	0.626		
	④3자녀	2	4.800	0.283		
	⑤기타	4	3.850	0.191		
성별	①남성	226	4.265	0.610	t(229) =-.784	0.544
	②여성	5	4.48	0.482		
주택*	①있다	185	4.283	0.634	t(230) =.754	0.016
	②없다	47	4.209	0.483		
재산 (원)	①~5천만	33	4.133	0.657	F(5, 226) =1.661	.145
	②~1억	118	4.227	0.571		
	③~2억	37	4.403	0.580		
	④~3억	27	4.124	0.685		
	⑤ 3억~	17	4.333	0.502		

\* p<.05, \*\* p<.01

### 3.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노후생활인식을 독립변수로, 노후설계준비를 종속변수로, 학습활동을 조절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계급, 소속, 학력, 종교, 결혼, 주택의 6개 요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들만이 3개의 노후설계준비 변수 중 최소한 한개 이상의 변수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만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2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같이 투입하였다. 3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추가하여 독립변수의 2가지 요인과 학습활동을 하나의 변인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3.1 노후생활인식이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가지(예상되는 문제점 인식:t=5.741, p<.001, 성공노년 인식:t=4.157, p<.001) 요인 모두 F=5.741, p<.001에서 유의하여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 1-1(예비 전역자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인식은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

을 미친다)와 연구가설 2-1(예비 전역자의 노후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 채택되었다.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7.1%(R<sup>2</sup>=.271)며 분산팽창계수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10보다 작은 값을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투입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5. 노후생활인식이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인구 통계 학적 특성	계급	.066	.100	1.260	-.048	-.073	-.952	
	소속	육군	.063	.028	.412	.025	.011	.182
		해군	-.010	-.006	-.091	.097	.063	.956
		공군	-.410	-.064	-.978	-.290	-.045	-.755
	학력	.082	.126	1.536	.155	.239	3.113**	
	종교	기독교	-.156	-.104	-1.098	-.198	-.132	-1.521
		불교	.183	.097	1.163	.108	.057	.752
		천주교	.031	.020	.216	.063	.039	.474
	결혼	미혼	.389	.120	1.074	.504	.155	1.520
		결혼	.391	.086	.854	.551	.122	1.319
이혼		.956	.123	1.547	.883	.113	1.565	
주택	-.325	-.181	-2.675**	-.082	-.046	-.702		
노후 생활 인식	예상문제 점인식				.356	.368	5.648***	
	성공노년 인식				.379	.252	4.157***	
F		2.368**			5.741***			
R <sup>2</sup>		.115			.271			
ΔR <sup>2</sup>					.156			

\*p<.05, \*\*p<.01, \*\*\*p<.001

#### 3.2 노후생활인식이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 2가지 중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t=3.778, p<.001)은 유의하여 연구가설 2-2(예비 전역자의 노후 문제점 인식은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으나 성공노년 인식은 t=1.5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가설 1-2(예비 전역자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인식은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각되었다.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8.5%(R<sup>2</sup>=.185)이다.

표 6. 노후생활인식이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인구통계학적특성	성속	계급	.109	.180	2.274*	.044	.073	.899
		육군	.291	.142	2.110*	.259	.126	1.924
		해군	-.111	-.079	-1.110	-.049	-.035	-.503
	종교	공군	-.391	-.067	-1.025	-.295	-.051	-.795
		학력	-.046	-.077	-.943	-.008	-.014	-.172
		기독교	.002	.001	.012	-.029	-.021	-.233
	매변	불교	.032	.019	.226	-.007	-.004	-.051
		천주교	-.115	-.078	-.873	-.083	-.057	-.648
		미혼	-.529	-.178	-1.603	-.454	-.153	-1.417
	매변	결혼	-1.070	-.258	-2.572*	-.973	-.234	-2.406*
		이혼	-1.043	-.146	-1.857	-1.054	-.148	-1.933
		주택	-.322	-.196	-2.910**	-.178	-.108	-1.572
노후생활인식	예상문제점인식				.230	.260	3.778***	
	성공노년인식				.137	.100	1.556	
F		2.601**			3.513***			
R <sup>2</sup>		.125			.185			
$\Delta R^2$		.185			.060			

\*p<.05, \*\*p<.01, \*\*\*p<.001

3.3 노후생활인식이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가지 요인(예상되는 문제점 인식:t=3.372, p<.01, 성공노년 인식:t=4.975, p<.001) 모두 F=3.923, p<.001에서 유의하여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1-3(예비 전역자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인식은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와 연구가설 2-3(예비 전역자의 노후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 채택되었다.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0.3% (R<sup>2</sup>=.203)이다.

표 7. 노후생활인식이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인구통계학적특성	성속	계급	.096	.172	2.116*	.018	.032	.392
		육군	.010	.005	.074	.006	.003	.049
		해군	-.137	-.106	-1.454	-.067	-.052	-.751
	종교	공군	-.397	-.074	-1.104	-.368	-.069	-1.090
		학력	-.057	-.105	-1.249	.000	.000	.000
		기독교	.145	.115	1.185	.130	.103	1.138
	매변	불교	.248	.157	1.836	.192	.121	1.519
		천주교	.043	.032	.347	.039	.029	.334
		미혼	.342	.125	1.099	.400	.146	1.374
	매변	결혼	.097	.025	.246	.191	.050	.521
		이혼	.881	.135	1.663	.777	.119	1.567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노후생활인식	예상문제점인식				.187	.230	3.372**
	성공노년인식				.399	.315	4.975***
F		1.520			3.923***		
R <sup>2</sup>		.077			.203		
$\Delta R^2$					.126		

\*p<.05, \*\*p<.01, \*\*\*p<.001

4. 조절효과

조절변수와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회귀분석 실시 시 공차한계가 .02 이하, 분산팽창요인(VIF)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Aiken and West[27]는 조절회귀분석의 경우 mean-centering을 권장하였다. 각 케이스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각각의 평균값으로 차감하여 그 값들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1 노후생활인식과 경제적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활동의 조절효과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과 경제적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활동의 조절효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인식과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적(t=4.955, p<.001)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도 유의적(t=7.399, p<.001)이므로 학습활동은 유사 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이고 조절변수의 계수가(+)이므로 학습활동이 커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인식이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진다. 그러나 성공노년인식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없다.

표 8. 노후생활인식과 경제적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활동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t	B	$\beta$	t	B	$\beta$	t	
인구통계학적특성	성속	계급	-.048	-.073	-.952	-.013	-.020	-.287	-.039	-.059	-.865
		육군	.025	.011	.182	-.037	-.017	-.294	.001	.000	.005
		해군	.097	.063	.956	.102	.066	1.098	.107	.069	1.212
	종교	공군	-.290	-.045	-.755	.125	.020	.350	-.146	-.023	-.418
		학력	.155	.239	3.113**	.069	.137	1.899	.116	.179	2.593*
		기독교	-.198	-.132	-1.521	-.355	-.237	-2.927**	-.251	-.168	-2.139*
	매변	불교	.108	.057	.752	-.068	-.036	-.503	-.016	-.009	-.126
		천주교	.063	.039	.474	-.102	-.064	-.820	-.064	-.040	-.540

MC예상 문제점인식	미혼	.504	.155	1.520	.505	.155	1.667	.280	.086	.968
	결혼	.551	.122	1.319	.852	.188	2.213*	.523	.115	1.406
	이혼	.883	.113	1.565	1.000	.128	1.938	.885	.114	1.802
주택		-.082	-.046	-.702	-.191	-.106	-1.763	-.151	-.084	-1.465
MC예상 노년인식		.366	.368	5.648***	.220	.227	3.595***	.138	.142	2.274*
MC예상 문제점인식*		.379	.252	4.157***	.200	.133	2.282*	.206	.137	2.464*
MC예상 노년인식*					.440	.423	6.600***	.471	.453	7.399***
MC예상 문제점인식* MC학습활동								.396	.283	4.955***
MC예상 노년인식* MC학습활동								-.020	-.009	-1.177
F		5.741***			9.318***			10.544***		
R <sup>2</sup>		.271			.394			.457		
ΔR <sup>2</sup>					.123			.063		

\*p<.05, \*\*p<.01, \*\*\*p<.001, MC : Mean Centering

#### 4.2 노후생활인식과 신체적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 활동의 조절효과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과 신체적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활동의 조절효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인식과 신체적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적(t=-2.154, p<.05)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도 유의적(t=2.507, p<.05)이므로 학습활동은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이고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이므로 학습활동이 커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인식이 경제적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작아진다. 그러나 성공노년인식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없다.

표 9. 노후생활인식과 신체적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 활동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인구 통계 학적 특성	계급	.044	.073	.899	.059	.098	1.214	.072	.120	1.477	
	육군	.259	.126	1.924	.232	.113	1.744	.209	.102	1.568	
	소속	해군	-.049	-.035	-.503	-.047	-.034	-.489	-.048	-.034	-.498
	공군	-.236	-.061	-.795	-.118	-.020	-.316	-.017	-.003	-.044	
	학력	-.008	-.014	-.172	-.037	-.062	-.756	-.050	-.065	-1.032	
	종교	기독교	-.029	-.021	-.233	-.037	-.071	-.764	-.144	-.105	-1.127
	불교	-.007	-.004	-.051	-.062	-.048	-.588	-.110	-.064	-.787	
	천주교	-.083	-.057	-.648	-.154	-.105	-1.190	-.171	-.116	-1.322	
	결혼	미혼	-.454	-.153	-1.417	-.453	-.153	-1.437	-.340	-.114	-1.069
	이혼	-.973	-.234	-2.406*	-.844	-.203	-2.104*	-.683	-.165	-1.684	
주택	미혼	-.1054	-.148	-1.933	-1.004	-.141	-1.867	-.948	-.133	-1.772	

	주택	-.178	-.108	-1.572	-.224	-.137	-1.969*	-.243	-.148	-2.163*
MC예상 문제점인식		.230	.260	3.778***	.172	.194	2.696**	.211	.238	3.199**
MC예상 노년인식		.137	.100	1.556	.060	.044	.662	.055	.040	.605
MC예상 문제점인식* MC학습활동					.188	.198	2.712**	.174	.183	2.507*
MC예상 노년인식* MC학습활동								-.187	-.146	-2.154*
F		3.513***			3.865***			3.728***		
R <sup>2</sup>		.185			.212			.229		
ΔR <sup>2</sup>					.027			.017		

\*p<.05, \*\*p<.01, \*\*\*p<.001

#### 4.3 노후생활인식과 여가노후설계준비 간 학습 활동의 조절효과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과 여가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활동의 조절효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공노년 인식과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적(t=-2.148, p<.05)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도 유의적(t=7.467, p<.001)이므로 학습활동은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이고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이므로 학습활동이 커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인식이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작아진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없다.

표 10. 노후생활인식과 여가노후설계준비 간 학습 활동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인구 통계 학적 특성	계급	.018	.032	.392	.051	.091	1.254	.049	.087	1.203	
	육군	.006	.003	.049	-.054	-.028	-.486	-.067	-.036	-.613	
	소속	해군	-.067	-.062	-.751	-.062	-.048	-.778	-.062	-.040	-.659
	공군	-.368	-.069	-1.090	.025	.005	.081	-.174	-.032	-.555	
	학력	.000	.000	.000	-.063	-.116	-1.563	-.068	-.107	-1.452	
	종교	기독교	.130	.103	1.138	-.019	-.015	-.179	.018	.014	.167
	불교	.192	.121	1.519	.026	.016	.221	.023	.014	.196	
	천주교	.039	.029	.334	-.117	-.087	-1.091	-.101	-.075	-.944	
	결혼	미혼	.400	.146	1.374	.401	.147	1.533	.374	.137	1.425
	이혼	.191	.050	.521	.476	.125	1.432	.414	.109	1.239	
주택	미혼	.777	.119	1.567	.888	.136	1.991	.884	.132	1.959	
이혼	.035	.023	.338	-.068	-.045	-.729	-.059	-.039	-.634		
MC예상 문제점인식		.187	.230	3.372**	.058	.071	1.095	.036	.044	.659	
MC예상 노년인식		.399	.315	4.975***	.229	.181	3.024	.219	.173	2.913**	

MC학습활동		.417	.477	7.237	.427	.489	7.467 ***
MC예상 문제점인식* MC학습활동					.104	.088	1.445
MC성공 노년인식* MC학습활동					-.216	-.122	-2.148 *
F	3.923***	8.024***				7.656***	
R <sup>2</sup>	.203	.359				.379	
ΔR <sup>2</sup>		.156				.020	

\*p<.05, \*\*p<.01, \*\*\*p<.001

### V. 요약 및 제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14년도 예측으로는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가 현재 5.26명에서 2036년이면 1.96명으로 2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노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8].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과거처럼 자식에게 기대거나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후 문제에 군인도 예외일 수 없기에 이제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퇴역을 앞둔 예비 전역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생활인식과 노후설계준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3가지 영역(경제적, 신체적, 여가) 노후설계준비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영역에서는 계급, 학력, 종교, 가정구성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가 영역에서는 가정구성과 주택소유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들 2개 영역(경제적, 여가)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신체적 영역에서는 재산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인은 모두 학력과 계급,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매일 체력단련을 해야 하기에 일반인 대상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영역중 신체적 영역을 제외한 2가지 영역에서는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

체적 영역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군인특성이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독립변수인 노후생활인식의 두 변인 중 성공노년인식과 종속변수인 신체적 설계준비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나타난 것으로 선행연구[4][9]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인식을 이들 선행연구와 다르게 상반된 2개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한 결과로 분석된다.

셋째, 독립변수(노후생활인식)와 종속변수(노후설계준비) 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학습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후생활인식 중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 요인과 3개 영역(경제적, 신체적, 여가)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활동의 조절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나 학습활동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후생활인식 중 성공노년 인식 요인과 노후설계준비 간 학습활동의 조절효과는 2개 영역(경제적, 신체적)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활동은 모든 영역의 노후설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후생활인식의 개념을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인식’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노후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학습활동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활동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직기본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의 내용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전직지원교육에 ‘노후설계의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과목에 포함함은 물론, 전역이 임박된 시기가 아닌 충분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주로 가계를 꾸려가는 군인가족(배우자)을 대상으로 교육해야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진단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모집의 어려움으로 연금수혜대상인 20년 이상 군에서 장기 복무한 상사 이상 대령까지의 군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중기(10-19년) 복무자에 대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은 결혼,

주택마련, 가족부양, 자녀교육 등 경제적으로 가장 큰 지출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전역하면서도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29]. 끝으로 군인을 포함하여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취약한 영역인 ‘여가’ 분야에 블로그, 카페, BAND, 카톡 등 SNS의 효과를 연구하여 사회관계망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지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용희, *직업군인의 노후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정재국, “직업군인의 노후대비실태에 관한 고찰”, *융합보안* 논문지, 제13권, 제2호, pp.185-193, 2013.

[3] 정현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50권, 제1호, pp.201-223, 2007.

[4] 배문조,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 준비의식이 노후생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1호, pp.45-61, 2011.

[5] 육군본부, “제대군인 삶의 실태 조사결과”, 2005.

[6] <http://www.mps.go.kr/milpen/renewal>

[7] 국방부, *'14년도 전직지원교육지침*, 2014

[8] 최상일, 강정규, “노후생활인식 및 준비도가 은퇴기 주택규모 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0권, 제2호, p.169, 2012.

[9] 김혜진,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2권, p.64, 2012.

[10] 이준우 외2명,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회지*, 제31권, 제3호, p.718, 2011.

[11] 이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비노인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100, 2006.

[12] [http://www.100senuri.go.kr:4433/page.jsp?](http://www.100senuri.go.kr:4433/page.jsp?mCode=A0768)

mCode =A0768

[13]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1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28214>

[15] Birre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1977.

[16] 정중보, *생애발달(노화) & 노후설계론*, 2013.

[17] J. W. Rowe and R. L. K Kahn,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Vol.37, No.4, pp.410-433, 1997.

[18] 홍석태,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9] Leitner, *Leisure in later life*, Binghamton, NY, 1985.

[20] 홍숙자, *노년학 개론*, pp.294-297, 2011.

[21] R. A. Neo, *Trainnee's attributes and attitudes: Neglected influences on training effectiven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86

[22] 박지선,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3] 김정임, *20대 청년층의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4] 김남순, *중년층 노동자의 노후설계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5] 오경숙,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노후생활인식 및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6] 박희정, *기업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직업 존중감과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7] 김진영, *교육훈련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11.

[28] Aiken, Leona S. and Stephen G.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1.

[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8>

[30] 국방부, *전역장병을 위한 국방취업가이드*, 2013

### 저 자 소 개

양 태 호(Tae-Ho Yang)

정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군인 복지

임 왕 규(Wang-Kyu Lim)

정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사회적기업, 고령친화산업, 기술경영,  
경영공학 등